



# 기능성 약용수목 재배경영 및 계획

## 들어가며

산업발달로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환경과 더불어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과 날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맛과 약용 등의 기능이 강조되는 건강식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리 선조의 유물로서 전해 오던 문물, 전통, 풍습을 버리고 서구문명을 모방하기에 열중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 고유의 오천여 년 장구한 역사를 쌓아온 한방 의도는 무시하고 전통 있는 한방약은 하찮은 초근목피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비과학적인 하나의 유물처럼 여기어 배척당하고 있었던 것은 실로 유감 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산림 내 약용가치가 높은 주요 약용수목을 대상으로 잎, 꽃, 뿌리 등으로부터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리성분 분석을 통해 약용가치를 구명하는 많은 연구를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능성 건강식품 및 건강음료 개발 등 산업화와 또한 숲 가꾸기 사업지 및 휴경지를 활용해 산지 약용수목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해 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농·산촌의 재배자는 양적인 생산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약용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와 친환경 기능성 재배체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배체계의 변화를 통해 우수한 약용수목을 안정적인 생산과 더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입 약용수목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 세계 어느 시장보다 우수한 약용수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산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산야에서 자라고 있는 기능이 좋은 수목의 탁월한 효과에 대하여 다시 재음미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는 약용수목에 관한 임상연구를 거듭하여 신개발 약품의 원료를 약용식물에서 취하고 있고 농·산촌에서도 유명한 부업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실로 다양한 일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산지 자원화의 일환으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법을 개정하여서까지 산림에 약용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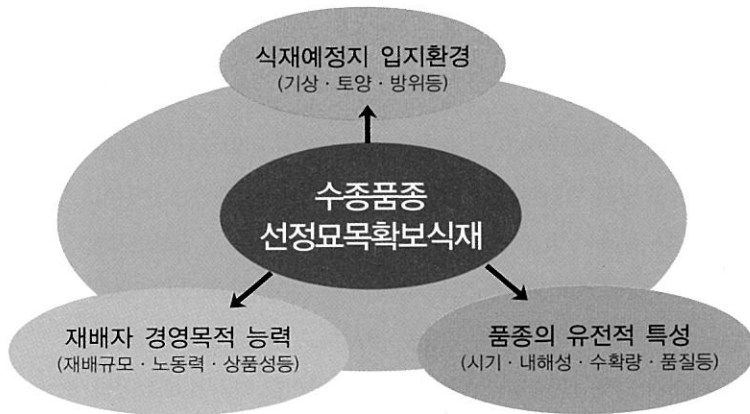


박형순  
농학박사  
(주)청림나무병원 원장

## 약용수목재배의 경영계획

### 1. 적지선정

약용수목은 기후, 토질에 따라 수확량과 품질이 좌우되므로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재배지의 입지환경으로 기상, 토양, 방위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 재배하여야 한다. 특히 재배자들의 경영목적, 재배규모 등 능력에 따른 상품성과 품종의 유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묘목을 확보하여 계속하여 생산 출하가 되어야 한다. 산지 재배 시 주의할 점은 재배 선진지를 견학하여 고산 한랭지, 남부지방의 온난지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2. 약용수목의 식재계획은

약용수목 재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종의 결정이다. 재배할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거쳐 수요전망을 판단할 때는 단기성, 단기성 수종 (1~2년 수확), 장기성 수종 (3~7년 수확) 등을 감안하여 수종, 토양,

자금, 노동력, 등을 계획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수종

약용수목의 선택 시에는 적합한 수종이 적지적수에 정해진 토지의 입지 조건에 알맞은지를 고려해야 한다.

#### - 토양

토양의 입지조건으로 토성, 습도와 배수관계, 일조량, 지리상의 적지 등을 고려하고 점검한 후 수종을 결정한다.

#### - 자금

자금의 회전연도로 묘목을 식재한 몇 년 후부터 자금이 회전되어야 하며 회전연도가 빠른 속성수, 장기 수종으로 수익성이 많은 수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 노동력

전망 있는 약용수목이 있어도 노동력의 조달이 어려우면 수종의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기타

기타사항으로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전망 있는 약용수목을 무성번식을하던가 고급 수종을 계획성 있게 연중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종선택

약용수목은 수종에 따라 수확량, 품질 및 가격의 차가 심하다. 따라서 좋은 품종의 선택은 소득과 직결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품질 면에서 볼 때 구기자는 대립종과 소립종으로 구분되는데 품질면에서 대립종이 유리하다.

4. 종자 및 묘목생산

약용수목 재배의 성패는 우량종자 및 우량묘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종묘를 선택하여야 한다.

- 1) 종자 :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추고 잘 정선되었으며 모양과 크기가 고르며 발아력이 좋은 헛종자라야 한다.
- 2) 구근 : 형상과 크기가 표준이며 껍질은 신선한 광택을 지니고 있고 상처 난 곳이 없으며 무거운 것이 우량품종이다.
- 3) 숙근 : 원뿌리 또는 곁뿌리가 잘 발달한 것이 우량품종이다.
- 4) 묘목 : 뿌리가 잘 발달하고 동령묘이면 마디 사이가 촘촘하고 큰 것이 우량품종이다.

5. 재배규모

재배면적은 처음에는 소면적으로 시작하여 직접 재배경험을 익히고 묘목증식을 자기가 증식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안전한 경영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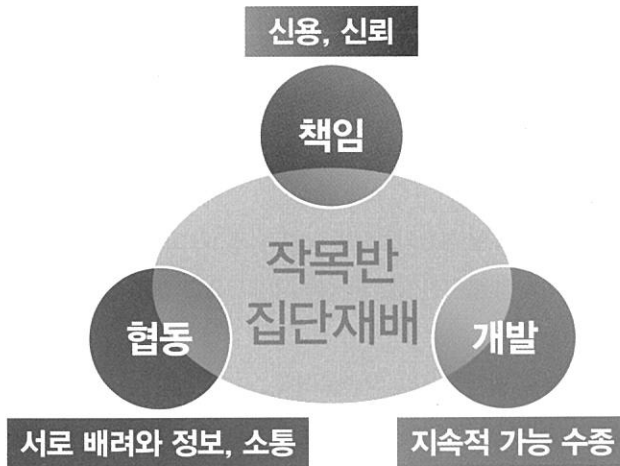
## 6. 판로 및 수익성

약용수목은 현재 체계적인 수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배자가 유통과정을 개척해 놓지 않고 무작정 재배하면 생산물 판로에 애로가 많다. 따라서 재배자는 수종별 수요전망을 예측하고 알맞은 종류를 선택하고 재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도 약용수목은 가격의 변동이 많아 생산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내에서 소비 및 외국의 수출입현황에 대한 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계속하여 관리하면서 생산과 판매시기를 결정하고 소득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7. 집단재배 및 공동가공

약용수목은 각 지역에서 소규모이고 분산재배하면 판매가 곤란하므로 가급적 수종별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집단재배와 협동조합을 확립하여 서로 정보 및 소통으로 공동판매체계를 이루어져야 하며, 재배자의 책임은 상호간의 신용과 신뢰로 품질향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된 수종을 생산하여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8. 재배 기술은

- 현재 약용수목 재배 농가가 급속히 증가 되었지만, 계획성 있는 설계가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의 약용수목 생산의 성공 여부는 수종의 선택, 품질, 비배관리 라고 할 수 있다.
- 약용수목 재배에서 품질을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식재거리를 조절하여 심고 정지전정을 해가며, 적절한 비배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 약용수목 재배 농가의 마음자세는 단기간 내에 생산되어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여 남들과 차별화가 되는 쪽으로 택하여 고부가 가치의 약용수를 생산해야 한다.
- 새로운 약용수목을 개발하였을 때 접목 삽목 및 조직배양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온실 안에서 일 년 연중 재배가 가능해져야 된다. 단기소득 방법으로는 무성번식을 통하여 2~3년안에 상품화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추구 하여야 한다.
- 재배자들의 선호하는 수종은 대중성이 있고 많이 약재로 이용되는 수종을 선택하여야 유리하다.
- 수목 선택은 그 지역에 맞는 약용수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 또한, 정치전정을 통하여 수형을 유도함으로 일반 약용수보다 몇 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 하다.
- 수형조절은 약용수목에 따라 가지의 배열을 함으로 열매, 잎, 가지 등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약용수목 번식방법은 수종마다 달라서 노천매장법과 약품처리법 실생번식과 무성번식 방법으로 번식시킨다.



#### 9. 약용수목의 생산 및 개선은?

- 약용 단지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휴 토지 내 자원 조성 확대
- 경영이 우수한 선도 임가 육성 지원
- 안정적 생산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지역별 수종(품종)의 차별화 및 다양화
- 재배기술 연구 및 연계의 강화
- 산성화된 임지의 친환경적 토양개량 실시
- 약용수 소비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품 개발 보급
- 생활 속의 수요창출로 내수시장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
- 약용자원 조성공간의 정비 및 약용자원 문화의 조성
-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약용수 소비시장 확대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 생산 임가와 시장 간의 생산, 기술, 가격, 소비동향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의 인프라 구축

## 10. 전망있는 약용수목은?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율나무, 두릅나무, 고로쇠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복분자, 마가목, 작약, 채진목, 체리, 초코베리 등이다.



## 맺음말

앞으로 약용수목 생산자들은 각 지역의 기후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되 장기적으로 수요예측을 통하여 장·단기 약용수 생산에 대한 경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환경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약용수목의 생산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산업화, 도시화로 자연환경이 급속히 파괴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재보다는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보다는 질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래 약용수목 생산의 변화를 남보다 앞서 수용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점을 신속히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성 시 필요한 자생 약용수목으로 자연미, 향토미의 재현이 필요하며 또한 건강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생 약용수목 생산이 필요하다. 🌿